

다산포럼

실학 담론의 역사성과 짧은 생각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실학은 없다, 있다 의견이 분분하다. 조선 후기에 성리학에서 탈피하여 근대 지향적이고 민족 지향적인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실학’이라는 게 일반의 인식이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쏠아진다. 실학과 성리학이 다른 것이 아니다, 사족 체제의 자기조정 프로그램일 뿐 이어서 굳이 실학이라고 호명할 것은 아니다, 과학사 학계에서는 실학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등등.

지난 9월 실학학회 등이 ‘실학을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틀간에 걸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10년 전에도 ‘실학 개념의 재정립’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 바 있다. 실학이란 개념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처럼 재검토를 거듭하는 걸까?

본디 실학 개념은 보통명사로 사용되

었다. 문리적으로 실학은 ‘허학’(虛學)의 상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풀어 보면 공리공담이 아닌 실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을 뜻한다. 조선 초기에는 불교에 대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인 유학 내지 성리학이 실학이라 했다. 다음 시기에 가변 화려한 문장을 구사하는 사장학(詞章學)보다 유학 경전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경학(經學)이 실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물제도 정비와 외교 관계에 중요했던 사장학이 뒤로 밀린 것이다. 이처럼 실학의 개념은 시기에 따라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졌다.

지금 통용하는 실학은 조선 후기 일군의 학문적 경향을 범주화하여 호칭한 역사적 개념이다. 가령 유흥원, 이익, 박지원, 정약용 등의 학문인데 실심(實心), 실사(實事), 실공(實功)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대의 학자들이 스스로 실학이란 개념으로 범주화하지는 않았다. 고유명사로 쓰이는 ‘조선 후기 실학’ 개념은 후대에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다.

대한제국기(1897~1910)에 박은식과 장지연 등이 유흥원-이익-정약용을 계보화하는 한편, 김육과 박지원 등을 추가하여 주목했다. 박은식은 조선시대에 주로 추구했던 도학(道學)이 숭허유실(崇虛遺實)의 폐단이 있었다고 보고, 이와 대립시

켜 이들의 학문을 경제정치학, 경제학, 정치학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실학이라고 개념화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주된 의도는 근대 계몽의 일환으로 대한제국기의 실학을 모색하고 진흥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1920년대 학자에도 이어졌는데,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경제론자들을 실학파로 호칭한 일인 학자도 있었다.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흥원을 선구자로 하여 이익,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을 실용과 실증을 갖춘 실학파로 파악하게 되었다. 1960~1970년대에 와서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실학을 인식하고 근대 지향, 민족 지향을 그 핵심어로 삼았다.

근대화와 민족주의를 지고의 가치로 삼은 실학 담론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결과다. 서구화와 동일시된 근대화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데다, 서구중심주의에 바탕한 근대 개념 자체에 비판적 견해가 대두되었고, 민족주의의 폐해도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실학 담론이 복잡해지는 것은 논자에 따라 실학을 보통명사로 또는 고유명사로 달리 쓰는 데서도 기인한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을 고유명사로 쓰는 경우에도 관심의 초점과 범주에 관해 의견이 다기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 연구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그동안 소홀했던 분야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성된 실학 개념에 맞추어 설명하느라 오히려 조선 후기 실학의 온전한 실체를 놓친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 실학의 범주를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성호학, 북학, 다산학 등으로 분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싶다.

향후 실학 담론은 어떠해야 할까? 어느 시대고 낡은 제도와 이념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큰 문제였다. 작은 우리나라는 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세계 문화를 수용하고 주체성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였다.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는 의리 명분과 도덕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실용은 소홀했다. 지금도 이념을 내세워 모든 실체적 과제를 방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근대 지향을 개혁과 변화의 문제로, 민족 지향을 세계와의 관계 설정 문제로, 실용 지향을 가치와 실용의 조화 문제로 치환하여 우리 시대의 실학 담론을 전개할 것을 제안해 본다. 조선 후기의 실학이든, 조선시대의 경제론이든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 낸다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방적이고 실제적인 작풍을 조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社 說

사퇴 거부 이정현 대표 언제까지 버틸 건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갈수록 가관이다. 비박계(비 박근혜)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 중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인 강석호 의원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자 최고위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통령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조금만 위기관리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며 사실상 ‘사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립무원의 대통령이 이 난국의 무기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괴로워 신음하는데 나 혼자 마음 편하자고 유유히 결을 떠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기는 싫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했다. “한 간교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평생 쌓은 명예와 업적과 수고를 다 잃었다.” 이는 국기 문란 사태의 책임이 최 씨에게 있을 뿐, 박 대통령에게는 전혀 없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진 이 대표의 인식 수준을 여과 없이 드러낸,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본인 말마따나 ‘흙수저 출신’으로서 박 대통령 덕분에 오늘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의리를 지키는 것은 좋다. 하지만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의 모금액 증액을 박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엄중한 위기의 시대에 지금 한가로이 개인적인 의리 운운하고 있을 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정말로 의리를 지키려 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진언한 뒤 지금 당장 함께 물러나는 것이 옳다.

광주비엔날레 외형적 성과는 거두었지만

제11회 ‘2016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올해 비엔날레는 국내 10여 개가 넘는 비엔날레 흥수 속에서도 약 40만 명이 방문해 돋보적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올해는 메인 전시장인 용봉동 비엔날레관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 운림동 무등현대미술관 등으로 전시 무대를 넓혀 시민들의 접근을 쉽게 함으로써 지역과 소통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본전시 관람객 수도 지난 2014년(17만6922명)에 비해 33%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시 구성 및 운영 면에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재단 측은 사상 처음으로 관람객의 ‘열린 감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전시장의 칸막이(칸막이)를 없앴지만 일부 운영위원들의 막으로 관람객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특히 20~30대 관

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마케팅 부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사실 올해는 박영우 대표이사 체제 출범 후 치른 첫 행사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게다가 지난 2014년 비엔날레 혁신위원회를 통해 재단은 지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마케팅 강화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을 내린 지금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작품의 광주비엔날레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여파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선 정부가 국제행사 졸업제도(일명 예산일몰제)를 내세워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 역시 불경기 등이 이유로 후원금을 내는 데 인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단은 이번 대화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확보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춘 특·특



김 태 진
동네주민 대표

나라가 어수선하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느낄 허탈감이 더 격정스럽다. 언제부터냐 한국에서는 열심히 해도 잘살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노력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는가.

최근 ‘순살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한 분노와 허탈감 등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허탈감은 생각보다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열심히 해도 어차피 안 될 것이니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허

청년들아, 네 탓이 아니다

탈감 및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다. 밤잠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준비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행동 자체가 부질없다고 느껴지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최순실의 딸은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고, 한 사람만을 위한 승마대회가 열리고, 헬스트레이너는 특채로 공무원이 되는 이 현실을 말이다. 영화로 만든다 해도 너무 비현실적인 탓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다.

돈과 권력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계속 격정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설문 조사에서 ‘만약 10억 원이 생긴다면 법을 어기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56%는 ‘괜찮다’라고 답변했었다. 그뿐 아니다. 또 다른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청소년 4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미 학창시절부터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미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휴거(휴먼시아 거저)’라는 말들이 대수롭지 않게 나돌며, 그것을 빌미로 왕따를 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인식이 국민 전체에 심각할 정도로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다수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직접 마주하게 됐다고 본다. 국민들, 청년들, 서민들을 위한 나라는 여대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이들이 본인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하고, 법을 바꾸며, 권력을 이용했던 것이다. 권력 싸움을 위해 청년 수 배당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은 무조건 반대하기도 했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은 무조건 찬성하기도 했다. 그 중심에 청년, 국민, 서민은 없었다.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럼에도, 본인의 꿈을 찾아갔으면 한다. 그럼에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쉽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고쳐나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시만을 위

한 암기식 교육을 바꾸고, 취업만을 위한 대학을 바꾸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잘 살 수 없게끔 법규를 바꿔야한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예전처럼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봤던 정치인들도 앞으로는 국민을 쉽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점점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만 말고 직접 뛰어들어 바꾸려고 노력했을 때 가능하다. ‘나 하나쯤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부터 조금씩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 기득권 계층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자. 우리가 이라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고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성공하려면



김 재 룡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무등산, 야구, 음식, 5·18. 흔히 ‘광주’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나아가 ‘자동차’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광주는 연간 생산가능한 자동차 대수가 62만대에 달해 울산 150만대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은 도시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그뿐만 아니다. 광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 11.9%를 담당하고 있고 그간 연평균 16.6%의 높은 자동차 생산액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에서 자동차산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더욱이 광주지역의 자동차산업 관련업체는 143개, 종사자는 1만4000명으로 2014년 말 기준 지역 제조업 고용률의 12%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자동차’와 ‘광주’를 함께 떠올리는 것이 어찌된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불황 여파로 울산과 거제지역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해당 지역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광주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와 자동차의 밀접한 관계는 이제 오히려 우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안녕한가?

일마 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습을 조금 내다볼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내 자동차 관련 국가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사업비가 3030억원에 달하며 지역내 생산액 7900억원, 일자리 7000개 창출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의 핵심사업에 해당한다.

사업계획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투자지원 계획이다. 광주시는 클린디젤, 전기자동차 등을 위한 연구·개발시설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향후 친환경자동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지역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나

주(문화·에너지), 영암(조선), 여수(해양·관광), 광양(항만·물류) 등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지역 균형발전계획에 있어서도 광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발맞추어, 광주시는 그간 자동차산업육성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대구시와의 달빛동맹(달구벌·빛고을동맹)을 통하여 ‘미래형 자동차 협력추진 TF’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조이통 자동차와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 지역주민과 정·재계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앞다투어 친환경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시장경쟁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자동차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시장선점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이 중 사업 초기에 관련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대책도 핵심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가 부족하더

라도 성장가능성, 대표자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하는 이른바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4년부터 ‘관계형 금융’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 개최, 지역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 기관들도 기존의 담보와 보증 중심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관계형 금융을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대출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기업의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지역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광주가 친환경자동차산업의 허브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빛나는 빛고을이 될 수 있도록 각 계각층의 다양한 노력과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無 等 鼓

망월(望月)은 ‘달을 바라봄’이라는 뜻이다. 내비게이션에 ‘망월’을 입력해 보면 같은 지명을 가진 전국 각지의 여러 곳이 주르르 검색된다. 하지만 ‘망월’ 하면 우선 광주시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중에서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산화한 영령들이 묻혔던 제3묘역(사적지 24호)이다. 입구 표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시 가족과 친지들은 항상 외종에서 공포와 분노에 떨며 처참하게 훼손된 주검을 손수레에 싣고 이곳에 묻었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도청 합락 때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다.”

‘폭도’로 취급받던 5공화국 군사정권하에서 유족들은 묘역을 맘 편히 참배할 수도 없었고, 숨죽여 울어야 했다. 묘역 들머리 바닥에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 민박 기념비가 박살난 채 깔려 있어 참배객이 밟고 지나가게끔 돼 있다. 시대가 변하며 이곳에 묻혔던 오월 영령들은 1997년, 직선거리로 600여m 떨어진 국립 5·18 묘지로 이장됐다. 그래서 3 묘역은 구 묘역으로, 국립묘지는 신 묘역으로 불린다.

또한 이곳은 민족민주열사 묘역이라고도 한다. 1987년 6월 9일 경찰이 손 SY 44 최후탄에 맞아 뇌손상으로 2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운명한 이한열을 비롯해 제4수원지에서 의문사한 이철규, 198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 김남주 등 묘역 곳곳에 낮익은 묘비마에 눈에 띈다. 묘역 안내도에는 모두 46명의 민주열사 묘소 위치가 표시돼 있다. 구 묘역을 돌며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항거한 고인들의 삶을 압축한 짧은 문장을 읽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비장감이 밀려온다.

고 백남기 농민이나 5월 27일 도청 합락 때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다.” 경찰이 손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17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사망 41일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고인은 구 묘역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국기 게양대 인근에 안장됐다.

요즘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국정을 제멋대로 휘두른 최순실과 민주화 및 농민운동에 평생 헌신해온 고인의 삶은 너무나 대비된다. 유족들은 묘비에 고인의 존함과 함께 ‘생명과 평화 일관’이라 병기했다. 고인의 영면을 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망월 구 묘역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